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D-2

우리도 함께 씩~씩

호남 최대의 자전거 축제인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오는 14일 금호 패밀리랜드 주차장에서 스타트 총성을 울린다. '녹색성장의 아이콘' 자전거 문화를 확산시키고 가족·동호인들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동호회를 소개한다.

자연사랑 인간사랑 '희망질주'

■ 전남대 동아리 노란자전거

'페달을 굴리는 순간만큼은 시간도 거꾸로 흐르는 그곳 노란자전거'

젊음의 패기와 순수한 열정으로 페달을 밟는 25명의 젊은이들이 건강한 질주를 준비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주축이 된 자전거 여행 동아리 노란자전거 회원들이 그 주인공들이다.

노란 자전거는 1997년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결성된 동아리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누비던 어릴적 순수했던 기억으로 돌아가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또 자전거를 사랑하자는 뜻을 담고 출발했다.

이들을 하나로 묶은 매개체 자전거와 순수함과 희망을 상징하는 노란색이 만나 노란자전거라는 설레는 이름이 탄생했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자전거를 향한 사랑으로 모인 이들은 매주 토요일 자전거 여행을 떠난다. 이제 막 신입생 티를 벗은 2009 학년 막내에서부터 어엿한 직장인인 졸업

생들까지 한데 어울려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누빈다.

매년 한 차례 이상 제주도를 찾아 자전거 일주여행을 하기도 한다. 3·1절 광주일보 마라톤 대회에서는 레이스페트들로 나서

거북이 행진 레이스 페트를

자원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자전거를 통해 건강과 우정을 다지는 것은 물론 봉사활동에도 참여하며 건강한 젊음을 만끽하고 있다.

이번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축제에서도 거북이 행진팀의 레이스 페트를을 자처하고 나섰다. 회원들은 레이스 페트들로 자원봉사로 하고 일반경기에도 출전할 계획이다.

즐거워 질주를 위해 모인 이들이지만 수준급 실력을 갖춘 라이더들도 있다. 자전거



자전거 사랑으로 한데 모인 노란자전거 회원들이 패기 넘치는 질주와 자연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묘기의 달인도 있고, 산악자전거를 즐겨타는 회원들도 있다. 이번 그린 자전거 축제에 출사표를 낸 권호동(28)씨는 지난 5월 열린 무주산악전국자전거대회에서 임상을

한 실력과 회원이다. 노란자전거의 회장 이정현(26)씨는 "함께 언덕을 오르고 길을 달리면서 서로 의지하고 꿈을 키워나간다"며 "자전거를 통해

추억이라는 아름다운 발자국을 새기고 건강도 챙기며 자전거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축제의 날' 날씨 좋습니다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축제가 열리는 14일은 비가 내리지 않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축제 당일 광주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고 기온도 평년과 비슷한 전망이다. 이날 광주의 기온은 7~14도로 예상돼 대회를 치르기에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국제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 개막



2009 광주 국제장애인 탁구선수권대회가 12일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는 10개국 15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픈전·개인전·단체전으로 나뉘어 15일까지 열전을 펼친다. 대회 첫날 휠체어경기 1회전에서 한국 박재영 선수가 홍콩 선수를 상대로 스매싱을 날리고 있다. 박재영 선수는 이날 승리를 거두고 2회전에 진출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호랑이 "거인 잡으러 왔다"



日 도착... 내일 한일 챔피언스 대결 신종플루 우려 선발 양현종 격리

일본 나가사키=김여울 기자

KIA 타이거즈 일본 대장정이 시작했다. 한·일클럽 챔피언십에 참가하는 한국대표 KIA 타이거즈가 12일 결전지인 일본 나가사키에 집을 풀었다. 12일 오후 1시 40분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 후쿠오카로 출발한 선수단은 버스편을 이용, 나가사키로 이동해 3박4일간의 일정을 시작했다.

14일 나가사키 빅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 KIA는 3루 덕아웃을 사용하며 후공을 하게 된다.

또 홈팀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경기는 오후 1시부터 진행되며 연장제한 없이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

우천 등으로 경기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15일 오후 1시에 대결을 벌인다.

대회 전날인 13일에는 공식연습과 기자회견이 열린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KIA의 연습이 진행된 뒤 양팀의 사령탑이 만나 회의를 갖는다.

오후 1시10분부터는 최희섭과 김상현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 기자회견이 진행된다.

결전일인 14일에도 KIA가 먼저 볼을 푼다. 오전10시 30분부터 45분간 KIA의 타격연습이 진행된 뒤 오전 11시 20분부터는 요미우리가 타격연습을 한다.

이후 양팀은 각각 30분간 프리연습을 가진 뒤 오후 1시 한·일의 자존심을 걸고 맞붙게 된다.

한편 이날 신종플루가 KIA 선수단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국제대회 참가하게된 KIA 선수단은 이날 모두 정장 차림으로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한 차림의 선수단에게 공통된 아이템이 있었다. 바로 마스크였다. 신종플루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구단측에서 선수들의 건강을 염려해 마스크 착용을 권장했다.

심한 독감에 걸려 며칠 병원신세를 지던 양현종은 신종플루 여파로 나흘로 방황하는 신세가 됐다. 선수단에게 감기를 옮길 것을 우려한 구단측은 양현종을 격리조치하기도 했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이종범이 12일 오후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 출국장을 나서고 있다. KIA 타이거즈는 14일 오후 1시 나가사키 빅스타디움에서 올해 일본시리즈 우승팀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아시아 야구 정상을 놓고 단판 승부를 펼친다.

앤서니 김, 뉴질랜드 챌린지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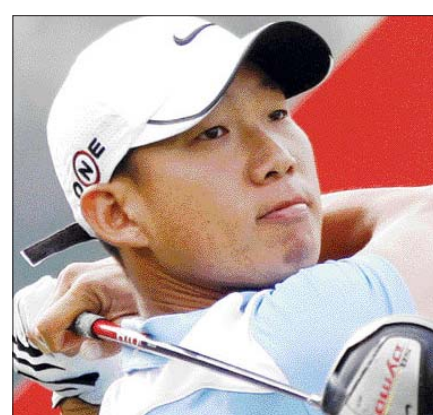
이벤트 대회·상금 100만달러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이 뉴질랜드에서 열린 키위 챌린지골프대회(총상금 200만달러)에서 우승했다.

앤서니 김은 12일 뉴질랜드 웰링턴의 케이프 키드내퍼스골프장(파71·7천187야드)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2라운드에서 5언더파 66타를 쳐 최종합계 5언더파 137타를 기록했다.

선 오해어(27·미국)와 함께 동률을 기록한 앤서니 김은 연장전에서 보기에 그쳤으나 오해어가 더블보기로 흠아웃한 덕에 우승 상금 100만달러를 차지했다.

이 대회는 30세 이하인 앤서니 김, 오해어, 한터 메이헌(27·미국), 카밀로 비에가스(27·콜롬비아) 등 4명이 출전에 벌인 2라운



드 이벤트 대회로 우승자에게 100만달러, 2위 50만달러, 3위 30만달러, 4위 20만달러를 나눠줬다. 메이헌이 2언더파 140타로 3위, 비에가스는 1언더파 141타 4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골프 황제 우즈 호주서 '버디쇼'

유럽투어 마스터스 첫날 1위



11년만에 호주를 찾은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팬들에게 멋진 샷을 뽐냈다.

우즈는 12일 호주 멜버른의 킹스턴 히스골프장(파72·7천59야드)에서 열린 유럽프로골프투어 호주 마스터스 첫날 버디 7개를

뽐고 보기 1개를 곁들여 6언더파 66타를 찍어내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대회 총상금 140만 달러의 배가 넘는 초청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우즈는 구름 관중 앞에서 황제의 샷을 보여주며 팬들을 매료시켰다.

10번홀에서 출발한 우즈는 12번홀(파5)에서 두번째 샷을 그린 옆 벙커에 빠뜨렸지만 절묘한 벙커샷으로 볼을 홀 3m 앞에 붙여 1타를 줄였고 14번홀(파5)에서는 탭인 버디를 잡아냈다.

후반틀에서도 버디 5개를 쓸어담은 우즈는 9번홀(파4)에서 티샷이 왼쪽으로 감기면서 숲속에 떨어져 1타를 잃고 흠아웃한 것이 옥에 티였다.

/연합뉴스